



양계 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HPAI 13개월 만에 발생

정부 AI 상시체제 전환 등 SOP 재조명 시급

지난 '07년 2월을 마지막으로 발생이 없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13개월만인 금년 4월 전북 김제에서 다시 발생하면서 양계업계를 다시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23일 현재 지난 4월 1일부터 3주만에 공식적으로는 19농가에서 발생하였지만 위험지역 내 살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것까지 합하면 28농가에서 발생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발생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살처분 농가만 해도 600여만수가 살처분이 이루어지면서 정부지금이 이미 2006/7년도 수준을 넘어섰다.

이번에 발생한 HPAI는 통상적으로 겨울에 발생되었던 2003/4년, 2006/7년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겨울이 아닌 20°C가 넘나드는 4월에 발생한 점과 폐사가 거의 없는 오리에서 폐사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단기간에 발생농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이 과거와는 다른 점으로 나타났다.

감염원인도 역학조사 결과 밝혀지겠지만 AI 상황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관계로 정부에서는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지역의 철새가 4월까지 국내에 머물다 날아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두차례의 사례에서와 같이 아직은 철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4월에 나타난 것을 볼 때 철새가 아닌 다른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유전자 타입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달리 오리에서 폐사를 동반하는 것을 볼 때 판이하게 다른 타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일반 언론에서는 인체감염 여부에 어느 때보다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살처분에 투입되었던 군인이 고열을 보이자 언론들이 앞다투어 방송하였듯이 인체감염 사례가 1건이라도 발생할 경우 양계산업은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11월부터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시특별방역기간을 상시체제로 전환하여 연중 가동에 들어갔다. 농가입장에서도 이제는 1년 내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시에 대비해 항상 마음을 놓지 못하게 되었다.

발생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초기 방역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농가와 유통상

인들의 의식에도 커다란 헛점이 발견되었다. 시에 감염된 오리를 유통상이 전남·북 지역은 물론 충남까지 판매하면서 사태는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더욱이 보상문제를 놓고 농가들이 모여 시위를 하고 심지어 발생농장주가 정부 공무원을 대동하고 정부를 드나들었던 사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위험지역 3km이내에는 이동이 제한됨에도 전혀 통제가 안된 점이 28건이라는 발생건수를 기록하게 하였다.

아직 시는 잠잠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발생이 없도록 모든 양계인 및 관련인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농가들은 철저한 차단방역과 외출을 자제하고 정부에서는 정확한 감염원과 전파경로를 조사하여 차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시 긴급행동지침(SOP)도 보완하여 시 없는 청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위생적인 삼계탕용 닭 생산 체계 구축 축산과학검역원과 2년간에 걸쳐 추진키로

삼계탕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식품으로 국민들의 보양식은 물론 일본, 홍콩, 대만 등에 수출되어 비빔밥, 불고기 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품으로 발돋움하였다. 이렇게 보급되는 삼계탕용 닭고기의 대부분이 일명 '백세미'로 유통될 정도로 삼계탕 하면 백세미를 쉽게 떠올리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백세미라는 이름으로 삼계탕을 생산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분회에서 위생적인 삼계탕 생산을 위한 대체품목 개발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정부가 정책사업으로 받아들여 오는 09년부터 2년 동안 축산과학원과 함께 백세미 대체품목 개발을 추진키로 하였다.

현재 삼계탕용으로 생산되는 백세미는 1년에 1억300만수에 달하며, 복을 전후한 여름철에는 한달에 1,700만수, 비수기인 겨울에만 해도 500만수가 꾸준히 생산될 정도로 닭고기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삼계탕 수출도 2000년에는 241톤을 수출하던 것이 2007년에는 749톤을 생산할 정도로 수출 효자품목으로 자리잡아왔다.

백세미는 알려진 바와 같이 육용종계 수컷과 산란실용계 암컷과 교잡을 통해 만들어낸 것으로 지난 1990년대부터 맛은 물론 경제성에서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이제는 대단위 계열업체들도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백세미의 대부분 비위생적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 씨알을 생산하면서도 일반 종계장들과 같은 종계에 준하는 관리(전염병예방법, 일반검정)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백세미가 질병의 사각지대로 시, 가금티푸스 등 닭 질병 전파의 매개체로 작용해 왔다. 또한 백세미가 과잉 생산될 경우 출하가 지연되어 일반 육계나 토종닭으로 둔갑판매되면서 유통시장을 혼란시키는 등 양계산업에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백세미로 생산된 삼계탕이 위생적으로 생산되지 않는다면 국내 소비는 물론 일본 등 수입국들의 수입중단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본회에서는 지난 1990년대 백세미가 생산될 때부터 불법 백세미에 대한 근절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축산과학원에서도 대체품종 개발에 힘을 쓰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삼계탕용 백세미의 모계가 더이상 종계에 준하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위생적인 삼계탕을 유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국민들이 삼계탕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진정한 삼계탕용 닭을 보급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가 유전자원 보존에 전력을 SI발생때 마다 피난생활 전전공공

고병원성 SI가 국내에 발생하면 양계인들은 혹시 닥쳐올지 모르는 돌발상황에 걱정과 근심이 깊어지게 마련이다. 이와 관련 국가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축산과학원과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고 있는 지산농원 등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일 순간에 그동안 보존해 왔던 귀중한 문화유산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금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천연기념물 265호로 지정된 충남 연산 오계(오골계)는 지난 2006년 발생당시 동두천 등에 피난을 갈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금년에는 충청도를 위협하는 SI로 인해 4월 26일 열릴 예정이던 '연산오계 문화제'를 취소하고 또다른 피난처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조선시대부터 6대째 오계의 순수 혈통을 이어오고 있는 지산농원은 문화제를 통해 오계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행사를 펼쳐올 정도로 국가적으로 존재 가치가 높다.

이 같은 실정은 축산과학원도 마찬가지이다. SI가 22km 인근 평택까지 확대되면서 15년 연구결실로 얻은 국가유전자원을 지키기 위해 비상에 들어갔다. 축산과학원은 현재 보유 중인 재래닭, 오리 등 순계 5품종 9계통 1만3,000여수의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수원 축산과학원으로 일부를 옮기고 직원의 외부출장 제한, 생축·생산물 외부 반입 금지 및 자체 SI긴급행동 지침(SOP) 기준에 따라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1992년부터 15년간에 걸쳐 전국에서 종자를 수집 품종복원에 착수하여 3계통 재래닭 순계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 종자는 소위 원종계로서 목적별 교배를 통해 다양한 실용계를 생산하는 모본이 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에 예측되어 있는 종자를 국산화 할 수 있는 귀중한 유전자원인 것이다.

천연기념물 오계 및 축산과학원의 중요한 국가자원은 문화재청과 농림수산물식품부가 협의하여 자체 닭들이 SI에 걸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SOP에 따라 500m, 3km내 오염·위험지역에 위치했다 하더라도 자체 닭이 감염되지 않을 경우 살처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피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양계**